

나주 카드형 지역화폐 '사랑카드' 출시

지역상품권 앱 'chak' 또는 농협·우체국서 신청
이용자 편의 확대·부정유통 방지...10%할인 적용

나주시가 지난 1일 종이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형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카드'를 출시했다.

나주시는 이를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카드상품권 1호 지자체'가 됐다.

나주시는 지난 6월과 7월 조폐공사, NH농협은행전남영광본부와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카드 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신뢰·보안성 제고와 사용자 편의 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

이달 1일 출시된 나주사랑카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한국조폐공사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내 농협·우체국을 방문, 농협·신한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충전 금액에 따라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방식으로 앱을 활용해 충전 및 사용내역 조회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1인당 한도액은 기존 상품권과 동일한 월 70만원이며 충전 금액 10%할인과 소득공제 30%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주시는 이번 카드상품권 발행을 통해 종이형 상품권 선호도가 비교적 저조했던 공공기관 임직원과 직장인, 청년층 등 이용자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종이형 상품권의 단점으로 지적돼왔던 '상품권 부정유통' 사전 방지 조치를 비롯해 상품권 발행 및 판매비용·환전 수수료 절감, 휴대성, 판매 대행점 업



나주시가 1일 카드형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카드'를 출시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왼쪽)이 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나주시 제공

무 간소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사랑카드는 올해 1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카드발급에서부터 충전, 잔액확인, 사용내역조회 등 편리해진 나주사랑카드 사용을 통한 착한

소비 운동에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나주사랑상품권 유통액은 8월말 현재 판매 대행점을 통한 일반판매 230억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정책분 322억원 등 총 552억원으로 집계됐다.

/나주=이재승 기자

“가족과 함께 ‘화순 맛집’ 오세요”

일반음식점 24곳·카페 8곳 선정 온라인 홍보

화순군이 화순 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순 맛집’ 32곳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화순맛집’은 일반음식점 24곳과 카페 8곳이다.

화순군은 지난 5월부터 맛집 추천과 신청을 받기 시작해 적격 여부 심사,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온라인 평가를 했다. 위생, 서비스, 편의시설, 관광지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현장 평가까지 3단계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화순군은 선정된 업소를 소개하는

맛집 가이드북 ‘화순 8경 맛집 기행’을 제작하고,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화순맛집’ 선정이 화순군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코로나19로 위축된 화순 관광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화순, 머무르고 싶은 화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관광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화순=서호령 기자

마른 표고버섯·무산김·된장·죽염 등

장흥 특산물 미국 수출길 올랐다

장흥군 농수특산물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 260여 농가가 조합원인 남도드림생산자협동조합은 미국 LA에 있는 전남 농수특산물 상설판매장 입점을 위해 최근 물품 선적을 마쳤다.

이번 수출에는 ㈜장흥식품, 한국기능성버섯, 장흥무산김(주) 등 9개 업체가 참여했다.

수출품목은 마른 표고버섯, 무산김, 된장, 죽염 등 장흥이 자랑하는 농수특산물로 구성됐다.

약 5만달러 여치가 선 예약 됐고, 최근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미국 현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많은 판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미국 상설판매 행사는 10월 말 LA 한남제인 플러튼, S-MART 두 개소에서 열린다. 남도드림생산자협동조합은 장흥군의 지원을 받아 현지 판매 행사에 참여한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지역업체의 유통망 개선과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여러 행정적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며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이 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나주시 시장 직인 ‘훈민정음해례본체’로 교체

지난 1995년 통합나주시 출범에 따라 제작·사용해왔던 나주시장 직인이 25년 만에 새롭게 교체된다.

나주시는 시장 직인을 기존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해례본체’로 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시장 직인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 사용 중인 읍·면·동장인, 민원사무원용

인, 회계관계공무원인 등 총 629개의 공인도 해당 사체로 전면 개작됐다.

시는 지난달 31일까지 공인 등록, 공고 절차 등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행정 업무에 적용했다. 읍·면·동 민원서류 전산 발급을 위한 인증기용 직인도 오는 4일까지 교체하기로 했다.

이번 공인 개작은 한글의 우수성을 날

리 알리고 직인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취지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원형에 가깝고 누구나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운 훈민정음해례본체로 변경을 추진했다. 특히 사용 빈도가 높은 시장 직인은 25년의 세월 속 마모가 심해져 글자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워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새 공인은 시민이



보기 쉽고 행정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다”며 “훈민정음해례본체로 개작한 직인은 백성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계승하는 나주시의 새로운 얼굴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나주=이재승 기자

담양 수해지역 구호물품 잇따라 전달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담양군이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수해민의 아픔을 함께하려는 기부 행렬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광주지역 기업인 천해유통은 2,000만 원 상당의 선풍기 300대를 기탁했으며, 신세계사이먼은 1,000만 원 상당의 쌀을, ㈜남도금원은 1,000만 원 상당의 벽지와 장판을 지원했다.

전남도의회와 민주당도당위원회는 500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각각 기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여성위원회에

서도 150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이재민을 위해 지원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음을 전해왔다. 자매결연도시 서울 용산구는 500만 원 상당의 쌀을 지원했다.

무안군도 이재민을 위한 수건과 양파즙을, 광주은행 도청지점은 750만 원 상당의 각종 구호물품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도 100만 원 상당의 생수와 컵라면을 지원했다.

또한 담양 현부역가구실내장식은 피해 지역에 150만 원 상당의 도배와 싱크대를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천해유통이 2,000만 원 상당의 선풍기 300대를 담양군에 기탁했다. /담양군 제공

지원했으며 죽순영농조합법인도 100만 원 상당의 벽지와 장판을, 비바리수산은

150만 원 상당의 장어와 갈치를 기탁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함평 나산면, 민관 협력 ‘착한주택’ 현판식

함평군 나산면이 최근 월봉리 월평마을에서 ‘나눔을 통한 착한주택’ 현판식을 개최했다.

‘나눔을 통한 착한 주택’ 사업은 나산면이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사업에는 두 기관·단체를 포함해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가 참여했으

며 특히 복지공동체는 주택수리, 토목, 전기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업 진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들은 올해 총 사업비 1,0650만 원을 투입해 지역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 약 50㎡ 규모의 주택으로 신축했다.

사업비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마을주민 등이 후원한 금액으로 채워졌다. /함평=윤예중 기자



KTR, 화순 수해 주민에 의연물품 전달

화순군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화순 수해 주민들에게 500만 원 상당의 이불과 쌀 등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화순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구충근 군수와 류재상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연구소장 등 관계자 세 명이 참석했다. 화순군은 이날 전달된 물품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해 수해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류재상 소장은 “갑작스러운 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화순=서호령 기자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 사랑의 성금 기탁

지속적인 나눔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가 최근 영광군청을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7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고성신 지부장은 “지역의 우수한 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영광군민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 줄 수 있어서 보람되게 생각한다”며 “앞으

로도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에 사랑과 나눔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장마, 폭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금을 기탁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